

추가 공모에 따른 심사 총평

2018년 경기문화재단의 “일곱 빛깔, 일곱 개의 감각 나누기”는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들과 예술가들이 이 사회의 혐오와 차별받는 현실에 대해 몸을 통한 다양한 교류와 소통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확산하고 공존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심사위원들은 본 사업의 취지가 현 시대에 시의적절한 사업으로 여겨져 공모 및 심의 과정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공모는 짧은 공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상과 시도하려는 노력, 참여자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 예술이 매개되어 사회와 소통하려는 고민이 녹아있는 단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져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공고에서 밝힌 것처럼 ‘문화다양성’의 가치 확산과 ‘몸을 통한 표현’이라는 점이 중요한 방점이었으나, 추가 공모 과정에서도 논의가 된 것은 장르의 부적절성과 문화 다양성의 개념 오해, 일방적인 문화 복지 차원의 교육프로그램들로 이에, 단체 선정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추가 선정과정에서도 보완되어야 할 것은 본 사업을 단순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을 개선하고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의 이해와 가치 확산을 위해 참여 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매개자 교육과 컨설팅이 필요함을 다시 제안 드립니다.

경기문화재단이 본 사업의 취지를 의미 있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대상과 예술 단체들이 만나,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발견하고 다수자와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에, 경기문화재단은 이번 공모에 선정되지 못한 대상자층과 함께하는 기획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더욱 다양한 장르에서의 실험적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본 사업의 취지를 살려나가는 한편 경기지역에서 차별 없이 문화다양성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의위원 김지연(교육연극연구소 프락시스 공동대표)

심의위원 김형희(트러스트무용단 대표)

심의위원 이 완(아시아인권문화연대 공동대표)